

어머님 특이 반송 문서

는 글쎄 (어머님라 Johannes Lee)

2009년 6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어머님 소재 주소

김 순희 (이석주씨댁)

송파구 오금동 44번지

현대아파트 44동 603호

Seoul Korea

전화 00822-409-5185

Johannes Lee

URB Köln I

2009년 6.26

2009년

6.26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년만에 아주 좋은 날씨를 허락받아 무사히 독일로 도착했다 - 공항에 나온 환 배라는 조금도 느끼지않고 건강해 보였다

6.29일 (주) U.B.F에서 예배를 보았다 - 내가 아는 모든 선교사와 2세들을 만나 반가웠고 그세들은 어찌큰지 못 알아보았다

아브라함, 사라선교사 요한이 아빠 - 모두 건강해 보였다

예배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말씀은 못 알아듣어도 만족했다

독일 목사님의 소개로 나는 일어나 절을하고 인사했다

그레미스는 피아노 조이는 키타 - 찬송에 맞추어 반주 하는것을 보나 즐겁고 든든하였다 -

아름다운 자연에 쫓겨 이 조그만한 집과 가족을 보면서 보잘것 없던 내가 이렇게 자손들이 성공한것도 (한국아이들이랑) 다~ 하나님의 덕이라 생각 하고 감사하였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라연속에서 남은 여생을 살고싶다고 생각했으나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의료보험도 없는것이 큰 걸림돌이 되어 단념할수 밖에 없다 - 또 말도 못하고 여기서 죽으면 그처리를 어떻게 하든가 하겠는가 - 남의나라에서 -

아무할일 없는 나는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큰나무가리에서 물어대는 새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서늘이 시원해진다

손만 버드면 따낼수 있을 만큼 베란다 가까이 있는 나무앞이 줄 지어있는 화분의 빨간 꽃과 어울려 화려하기 까지 하다

몇년전 은경이가 김수방과 같이 이집에 와서 하루밤 잤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 또 이집이 그것에 쌓여있어 더욱 좋다는 이야기를 내게 권력이 없었다 -

저는 나같이 느껴지지 않았는것일까 ?

7. 1A

나를위해 휴가를 받았던 며느리가 오늘부터 출근을 했다
 그레이스가 엄마 대신을 하는데 놀랍게 잘 한다
 찬이 부부는 아침 6시반에 일어나 새벽기도 끝내고 며느리는 6시반에
 바른 병원으로 출근하기때문에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않는는다
 그레이스는 그런엄마를 대신하여 식사준비를 하느라 커피 끓이고
 파넬깎고 다-먹은후 설거지하고 - 빨래정리하고 거실 장식장
 정리하여 내 옷을 꺼고 잠이놓고 정리다-끝낸후 2시의 방에서
 공부하고있다
 라도 조용해서 들여다보니 공부하고 있었다
 조이는 바른 아르바이트 나가으니 좋았고 -
 조이의 아르바이트 장소는 교수실이라고 한다
 그자리는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고 시험과 면접을 통과야 그곳에서 일
 할수있다고 한다
 말이 아르바이트지 오히려 좋은책들이 많아서 공부에 보탬이 된다나 -
 이 아이는 공부우이 좋은것같다 - 9점이란 점수는 아주 최고의
 점수인데 조이가 받았다고 한다
 조이는 키가 작아서 무시 당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런상대를 무시하고
 씩씩하게 행동한다고 한다 - 그러려면 연마나 노력해야 되겠는가
 그만큼 숨은 고통도 있을것이다
 그레이스는 피아노와 영어를 가르치며 일하고있었다
 또 그레이스는 조이의 엄마같다 동생을 잘 보살피며 사랑라는 마음
 을 역역히 나타내고 있다 - 얼마보다 더 -
 한국의 女초들이 그레이스 같이 가사일을 돕는 애가 있을까? -
 공부는 밤 12시 1시까지 한다는데 -
 며느리 에게도 감탄을 했다 - 찬이의
 학원이 어지러운것을 같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등등 -
 2002년도에 내가 본 학원과 어제본 학원은 달랐다
 모든 기구들이 많이 증가되고 선풍기 에어컨 등 없던것이 많이
 있고 학원 분위기가 많이 고급스러워져 있었다

나는 마음이 후뭏하고 기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찬이가
 힘이 있어 계속할수 있을때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주시옵소서
 하고 속으로 기도 하였다

7. 1B 성경 말씀. 잠언 - 1-1-7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얻기위함이며 그러려면 바른교훈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있게되고 의롭고 바르게 게꿀하게 살수있습니다
 교훈은 이해가 부족한 나를 돕고 어린자들을 이성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누우든지 각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지혜를 더 얻으십시오 - 다-
 만다고 생각하면 조언을 구하십시오 배우는 자세는 평평하게되고
 지혜를 증가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때에
 모든것을 깨달아 알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흘려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해가 현명하게 되고 의롭고 바르게 살게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려면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것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수있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려라
 (오늘 아침 찬이가 내게 전한 말씀)

2009년

7. 8일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롯이 두 나그네를 보자 자기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도덕적인 사람이며 잘 교육되어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그렇게 말해도 진심이 아니며 실제로는 귀찮은 마음이 있음을 드러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논치가 빠른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밖에 있겠다」 답했을 때
롯은 차라 자기 의무를 자각하면 행하리 못해 목 먹울것을 깨닫고 적극 감청했습니다

이 처럼 똑 같이 신앙 생활을 한 아브라함과 롯은 점차 서운다르게 되었습니다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을 때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그네로 생각하면 그들에게 할수있었다든 사실이 나그네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영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세상것에 집착하며 점차 형식적으로만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던후 이 두 도시를 멸하라는 사명을 받고 왔었습니다

결국 이 두 도시는 유황불로 멸함을 받게되었고 롯의 가족이 사는 길은 한시 바빠 소돔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사는 것이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각장을 가리면 평생 각장인데 이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깨끗한 천사들을 이끌어내어 욕된 일을 하려는 소돔성은 마귀
깨끗한 신앙인들이 이끌어내어 같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게 만들려는 이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어울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돈 벌고 잘 살라는 마음을 버리고 그 도시를 빠져나와 산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천사의 권유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등기라는 고통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복의근원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영접한 아브라함은 외로웠지만 많은 신앙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할 때 겨우 자신만 구했습니다

요하네스

7. 11 창세기 21-1-7

말씀하신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다

요절 1.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반듯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 그녀는 담뱃라고 첩을 두어 자식을 낳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신의 경수도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사라가 사라가 자식을 낳으리라고 약속할 때 웃으며 믿지 못했을 때가 되어 하나님은 사라에게 임신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이다

어떤 소원은 빨리 이루어 지리 아니하고

이렇게 담뱃까지 하고

불가능 해보일 때 이루어지기도 하는가 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두 말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가 마음에 놓는다

말씀하신대로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말이 아닐까?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 라는 말일 것이다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만한 분이 라고 여겼기 때문에
영대할수있는 힘을 얻었다고 리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자세가 하나님을 믿을만한 분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세가 되어야 우리에게 말씀대로 우리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소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고 내가 좋으니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마음이 생길때까지 오직
지켜 되는것이 아닐까?

경수가 끊어져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
라는 마음이 사라에게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가 되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이런 일이 빨리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사라는 힘을 얻은것이 아닐까 —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변화가 있어야 잉태되고 태생되는데
하나님은 사를 돌아 보셨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녀를 찾았다고 행하셨다

어떤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모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때 마리아와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믿음을 가졌을때
그기적의 시기가 담겨졌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루어 지는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 아닐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내 소원이 이루어 질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사라가 아가를 낳았을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삭 곧 웃음이라
는 의미의 이름을 주었고 사라도 나로 하여금 웃게 했다고
고 백했다

사라가 그것에 웃기도 했겠지만 자식 문제때문에 마음깊히

웃지도 못했던것 같다 — 쉽게 이루어지는 줄지만 이렇게
오랜 과정을 거치며 애 타는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지는 진정한 깊은 웃음이 될수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
하셨다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것이 모든것이 다 —
고 해서 행복한것은 아닌가 보다

사라는 하나님의 사랑때문에 행복한것이 아닐까?

물론 자식 이삭을 낳은것 때문에도 행복하지만 —

우리의 깊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것이다

아직 그렇게 못한 날들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때에 우리를 반드시 돌보
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때 기적은 이루어진다

요한네스

오늘아침 현이의 기도 내용이 다

아침 5시 5분에 새벽기도 갔다와서 쓴것 같은데 ^{아침} ~~시~~사때
안어주며 기도하였다

중간쯤 읽을때는 운력은 음성이 섞여 한참을 말을 못
하는데 나로 갑작히 눈물이 솟았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 주신것 같이 기적을 행하
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 믿는 리에게 땅을 행복케 하셔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 하신것이다
믿는자여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받아 큰 영광 돌리라 /

김서방이나 룬에게 이 글을 보여주고 싶다.

믿고 기다려라 — 믿음이 레일이니라

불의 의 이를 탐하지 말라

잠언 1-1-19 요절 1-19절

무릇 이를 탐 하는 자의 길은 다 - 이터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라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며 온유로 모든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머님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연로하여 고생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레이스가 평강 가운데 불신자들과 교제하며 맹순한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은혜주십시오

그레이스와 루이가 감사와 믿음으로 수양회 준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업이 여름동안에도 적자 나지않으며 물건을 팔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깨닫고자 하는 자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려는데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씁니다 또 물질도 소비합니다 - 그런데 잠언 12:1은 아버의 훈계와 어리의 법을 지키는것이 금과 같고 금 목걸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것이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본능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걱정스러운 충고를 해 줍니다 걱정스러운 마음, 잘 되게 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금과과 금 목걸리란 치장 하는것이 아닐까요

사랑의 말에는 큰 깨달음이 아닐찌라도 지혜가 담겨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임은 자신을 치장 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멋 있는 외모가 사람을 이끄는것은 어렵수 없습니다 금이 머리와 가슴에서 반짝일때 사람의 눈길이 거기에 가는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간단히 옷 입더라도 얼굴이 환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어쩔지 모든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스스로가 잘 나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드러날때 억지로 자기 방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제 허들과 부족한것이 다른사람의 눈에 띄이지 않을까요 - 부모니까 그리고 아내니까 충고해주시 남이 나에게 충고 해주지는 않을것입니다 제가 단번에 나의 단점을 고치리 못 할찌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겸손한 마음으로 인식할때 또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사람 앞에 행동할때 제가 비록 온전치 못해도 겸손과 온유의 장식을 하게되는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10월 19일까지는 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 토라도 크게 유익을 취하여 즐기며 뽐내는 목구멍 가득합니다 무법과 처량 간섭과 유혹과 모든 꾀를 베풀어 버리는데서 자신의 멋을 찾습니다 죄 없는 자를 까맣드 없이 해치며 보화를 빼어서 서툰 나누어 갖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강도 집단이 아니더라도 부유층,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새 이러한 세상적인 이득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자랑을 자기들의 멋으로 생각합니다 그들과 어울려다 보면 자신도 그렇게 해야 멋 있는 사람들이되고 그렇게 하리않으면 바보인것 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는 그들이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는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왜 숨어서 일 할까요? 그동안에 그의 영혼과 모든것이 고난을 당합니다

2001년에 학원을 경영하여 세 사업은 이제 9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그들의 감사가 제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조금더 벌어야 하는데 - 라는 마음이 생김과 조금
 해지거나 자신의 열심 없음을 꾸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때는 희관의 일들이 하기 싫어지거나 그일들이 잘 이루어
 지리 않는다고 화 내게됩니다
 불의의 일을 탐하지 않는것이 자기에게 손해처럼 바보인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헌신의
 분위기는 살아지고 남이 하는것 만큼만 하고 살려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체도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해칩니다
 멋있는 차를보면 눈길이 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기의 의의 갈로 가는것이 자신을 아름답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것을 채워주실것이며
 이익을 탐하지보다 오히려 잘 살기는 삶을 살아야 할것입니다

한마디 불의의 이를 탐하지말라

요하네스

7.14 - (내 일기)

어떻게 리나온지도 모르게 날이가고 오늘은 벌써 7.14일 -
 그레이스가 방을 열어나가고 2간 그의 짐을 나르노라 이집 식구들
 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 빈 라리에 조이가 책장을 사고 싶다고 해서 우리 식구 모두
 4명이 이른저녁을 먹고 백화점에 사러갔다
 내일(15일)이 그레이스 생일이라 하여 선물은 이불카바와
 조금만한 화분을 사가지고 왔다 (櫃 내외가)
 나는 무릎이 무릎이 있는지 무릎이 열어나고 몹시

피곤 했다

조이의 신앙이 대단하다
 저의 친구가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이쁘게 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을 고치는 작체가 싫다고 한다 -
 그레이스가 말하기를 조이는 귀가 작아서 가끔 동료들이 무시
 하는듯한 조짐이 보이면 더욱더 당당하게 행동한다고 한다 -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라고 -
 나는 생각했다 신앙이 성경이 어찌나 좋은것인지 -
 이런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기쁨이 아니겠나?
 참이는 세심력으로든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풍리하는 두 아이의
 신앙생활 터트, 모든면에서 대성공이구나 - 싶었다

7.24

이공원이 아름답다
 나는 하루 한번은 꼭 운동삼아 이공원을 돈다
 날이 갈수록 독일 이란나라가 부러워진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언제나 애들이 와글 와글 놀고있어 한국의
 텅 빈 어린이 놀이터가 생각난다 - 우리는
 아이를 적게 낳기도 하지만 모두 유치원이나 학원에 가고 있는
 것이다 -
 마음껏 놀리 못하고 어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라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이나라의 힘이 절약에서 오는것 같다
 물 들서다 먹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빈 플라스틱 병을
 모아서 전부 다시 반쯤하여 대가를 받고 물을 사온다

우리 나라 같이 바로 쓰레기 통에 버려지는 물 병이 참
아깝고 얼마나 낭비인지 가슴 아프다
한국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7. 26.

나는 UBF가 세계를 장악하고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
는 모두 UBF의 후세들이 이룰 것 같다
지금 2세대들은 활발히 복음을 위해 ~~활발~~ 활동하고 있고
3, 4세대가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감
이든다 —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레이스 또래의 2세대들은 세계 어느 곳에도
거리낌 없이 다니고 있다

어느 곳이나 (산골짜기 빼고는) 회관이 있고 선교사 가정의 있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양려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의 졸업반이라는 여학생이 독일에
왔다 — 이 학생은 미국 UBF 선교사의 딸인데 서울 회관
바운목자의 독일에 있는 아들집에 여장을 풀고 있는데 우리
여느리가 초대하여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 여학생은 한국말도 잘하는데 음향과 입 놀림, 망투가
마치 영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학생은 몇일후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영국으로
계월 정도 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무엇하러 가느냐 하니 도움이 아릅다 역할을 하러 간다나 —

나는 놀라서 왜 라고 물으니 이제 졸업하면 추격을 해야 되
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익히는 경험을 하고 오면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한다 — (미국에서는) —

귀한 점수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
이렇게 마음대로 세계를 돌아 다닐 수 있는 것이 UBF의

연결망이다 — UBF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는가 —
미국의 제도에 놀랐지만 그런 자리를 알아보아 주는 것도 각
선교사들이 앞선 해준 것이란다

최고의 엘리트며 이런 나라를 다니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

아무튼 대학생 성경읽기 때문에 모두가 리성인이며 앞으로
세상을 능히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또 하나님을 의지
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언젠가는 UBF가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세울 것이다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제사장 나라니까
현대는 세계를 이룩 나뉠 때는 — 한국에서만 우글거리는
아이들이 왜리 바보스러워 보인다
우물안 개구리 같다

7. 27

오후 5시 근처 공원을 한바퀴 돌고 왔다
놀이터에서 바글바글 놀고 있는 애들을 보고 또한번 감탄했지만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여인을 보고 또 놀랐다
약 20대의 젊은 여자다

그중 한 여인은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개가 쳐다보고 꼬리
질치면 파자를 하나씩 던져주고 있다

이 개 주인은 어깨에 무서운 문신을 많이 하고 마치 자랑하듯
같이 파인 끈 T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옆에 앉은 여자는 ~~담배~~ 담배도 피우지 않고 목까지 가리운 T
때문에 문신을 한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옷 차림을 볼 때
많이 젊잖아 보였다

참 아름다운 집 주위 환경과 공원에도 여기 올 때 마다 감탄
하지만 여자들의 노춘이 너무 심한 데도 놀랐다

이제 1개월 정도 공원을 다녀보지만 남자 청년들이 벤치에
앉아 달배피우는것 아라 못봤다 - 아마 바쁜가보다
남자는 노인들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나는 점점 여자들이 달배 해리고 남자가 짝아
지는것을 느끼며 말세의 징조를 생각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리만 하나님은 남자부터 창조하셨다
거기에도 우리는 의미가있다고 생각해야 돼리 않겠느냐? -
어제는 슈퍼에서 산달이 (반상) 다-된 여자가 공같이 부푸른
배를 몽땅 다-내 놓고 들어오는것을 보고 기절할 뻔 했다
바리는 배 아래있고 T셔츠는 배를 가리리 못한채 배 위에
있으나 완전히 둥근배와 배꼽살이 다-나왔는데 배꼽은
밖으로 튕-튀어나오고 있다
부끄럼없이 자랑하듯 뒤로 제각하게 제치며 남편같은 남자와
손을잡고 들어온다
나는 세계 어느곳에 이런 나라가 또있을까? - 하고 생각했다
아무리 선진국이고 자유의 나라 라할찌라도 이런 행동은 품기불러
온 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
가라울 수록 아름다운것이 여자 아니겠는가?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2009. 2. 2

찬언 3-1-10

요절 3, 6절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일요일을 감사합니다
제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리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오래살고 평강해 줍니다
법과 명령은 그 숫자가 한없이 많기때문에 저자는 다시 마음
가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는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자와 진리를 목거리 처럼 늘 품에 착용하는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서로 반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앞과 사람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돈중 어느하나가 빠진다면 리우치게 될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한쪽에 리우친 그사람을 귀하게 여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와 진리를 잘 배합하는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시 이 배합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령을 의뢰하지 말라는것입니다
나의명령 (영리함) 을 의리할때 하나님의 뜻이 아님 잘못을
저리르게 되어 지나치게 인라하거나 지나치게 진리적이 되어
버릴수가 있습니다

법사 곧 모든일에 하나님이 보시고 관여하시고 그의 뜻이 있다
는것을 인정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길을 인도 하신

다는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 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함)
악을 떠나라 - (하나님을 두려워함)
첫 열매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잘 된일에
하나님 ~~인정~~)

이 모든것이 하나님을 잘된 일이나 못된일에 인정하는것입니다

곧 결론을 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사건 곧 잘된 일이나 못
된일에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모든것이 분명해리는것이 아니라
차츰 그리고 길을 걸어가듯 바른길로 인도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파음이 많아서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일이 나의 생각대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것이 좋고 나에게 나쁜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때는 그것이 분명 권리에 여긔나는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한바디 너는 법사에 그를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 하시리라

요하네스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일정한 유업이 없어 많은 무리를 거느려야
했는데 여울한 일을 당해 도망나온 무리들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피해나온 다윗을 찾았기 때문이다
무리는 다윗이 자기들과 같은 처지인것을 알았고 다윗도 그들
을 다시 구박할수가 없었것이다

이러한 다윗이 부자 나발에게 추수때와 양털 깎는 때를만나
먹을것을 구하며 부조를 요청했다

다윗은 불의를 싫어하니 그가 자기에게있는 군사나 나발의것을
빼앗을수도 있으나 단지 그의 양들과 종들을 보호해주며 사례
조를 부조를 받기 원하였다

나발은 부자였지만 아까운 생각이들어 다윗이 상전을 버리고
도망나온 불량라라고 욕하며 구하러온 다윗의 소년들을
쫓아 보냈었다

내가 나발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것을 거저 남에게 주는것을 몹시 싫어한다
많이 있어도 그렇다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도움을 구하는라나 대가를 요구
하는자에게 본의 아니게 욕을 하게된다

무엇인가 가진 사람으로서 빠르게 사는것은 더 어렵다
있어도 또 욕심이 있음으로 또 부락하는 사람도 많아질수 있으니
까 -- 그래서 가진사람의 표정과 마음은 오히려 딱딱
할수가 있는가보다

부조를 얻으러 갔다가 목을먹고 돌아온 자기 소년들을본 다윗은
몹시 화가났다

그는 늘 자기 소년들에게 나발의 양리는것을 보호해주고
요구하지 말라고 당부했것이다

자기의 얼굴이 상하고 자기소년들이 불의를 행하는것이 싫었
을것이다

그러나 추수날이 되었으니 나발이 조금은 자기와 소년들에게

사태 해도 된다고 다윗은 나름대로 생각했다
그런데 상전을 버리고 도망 나온 놈이라고 다윗의 아픈데를
찌르고 자기의 욕심만을 찾는 나발을 보자 그의 모든 수고가 헛
되었음이 너무나 분했다
그는 나발과 그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쳐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선의를 악의로 쓴 나발을 심판 하려고 했다
누가 악의를 조용히 당하고만 있겠는가?
누구든지 다윗의 처지에 서면 화가나고 보복하려 할것이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부아 그의 온당치 못한 욕심은
마침내 일을 저지르고 그소용들이에 다윗도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있었다

이때에 아비가일 이라는 나발의 처가 일이 그릇되고 있음을 알고
급히 음식을 싸들고 다윗에게 나아왔다
악하고 어리석은 나발에게 지혜있는 아비가일 이라는 아내가
있다는것이 신기하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지혜를 가지고 제때에 제일을 할수있는
용기과 판단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서둘러서 더 큰일이 일어나는것을 막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발의 우둔함과 잘못으로 나발에 속한
모든남자들이 같이 칼에맞아 죽을수 밖에 없었고 다윗은 화
른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사람이라는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을것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을 자기를 통해 지금 막으시며 다윗은
상전에서 쫓겨나온것이 아니라 주의싸움을 싸우는 주의종
이라고
얼마나 다윗의 아픈마음을 싸우고 바르게 지적한
말인가!

다윗의 화는 돌일수 밖에 없었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자신의 신수함을 막으신다고 믿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일을 이루실것이라고 예언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실 더 큰강태라 미해를 생각하라
모든 분이 풀렸고 담장에 일어나는 화를 하나님을 봄으로 누를수
있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사건이 터질
까 - 아비가일은 여자이면서 선지라처럼 때에 맞게 리혜
와 판단을 가지고 큰 불행을 막았다

그녀는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의
내조자가 된다 지혜있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악한 나발의 처
가된것은 슬픈 비극이었지만 그녀를 통해서 나발의 집안은
오래동안 평안 했을것이다

나중에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통일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다
우리가 순간의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먼 강태라 관은 뜻을 생각하면 순간적인 화와
잔 못된 행동을 피할수 있으리라

결국 지혜 있는 여자 아비가일 이 한 조건이 위라갈다고
할수있다

(삼상 25장)

요하네스

2009. 8. 9日

잠언 3. - 11 - 20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2장부터 1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훈계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많은 말을 할 필요도없고 할수있는 지혜도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꾸지람을 싫어하지말라고 충고합니다
꾸지람을 통해 지혜의 명철을 다시 얻게 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은 잘못해도 꾸지람을 안받는데 나는 계속 조금만 잘못해도 꾸지람을 받는다면 내가 주눅이 들거나 화가 나지 않을까요?
다른 애들은 신나게 놀아도 괜찮는데 나는 이것저것 나의 의무를 다 해야한다면 화가나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다고 까지 생각될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이것은 비단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만 통하는것이 아니라 어른이되어도 하나님이 나만 계속 지나치게 징계하고 안 시킨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저는 몇번 교통유칙을 어겼는데 딱지를 맞고 다른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린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오늘말씀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 하게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혹은 안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때 재수없다 나만 너무 징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지혜의 명철을 얻으려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반대편 잘못하고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자는 또 징계를 받지 않고 무사히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것을까요?

지혜를 얻는것이 은을 얻는것보다 낫고 그이익이 금보다 낫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밤낮 은과 금을 찾아 노력하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많은 대가를 지불할것입니다

지혜가 내가 사모하는 모든것보다 낫다
그의 오른손에는 강수가 왼손에는 부지가있다
지혜의 길은 평강이요 지혜는 생명수를 얻는 것과같은 사실이 마음에 인식될때 하나님의 작은 징계를 오히려 감사하고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한 근본적 마음가짐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기술자가 기계를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작동이 될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천지를 만드셨다는것을 믿을때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길것입니다
지혜 그것은 구하고 사모해야하며 징계는 기뻐해야 하는것입니다

최혜비스

J. 14 수양 회에서

제가 무엇인지도 - 나는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살때가 어제 같건만 유수같은 삶이 벌써 나를
80을 넘게하였다

한국에서 올때 수양 회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
기쁨을 주시라고 기도했었는데 오늘 내가 확신하게 NBF를 알고
기쁨도 맛볼수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때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접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세계를
지배 하고 또한 세계가 하나 될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달라고 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모두 알고있었다는것에 놀라 이여인이 구세주가 오신것을 알리고 증거했다
오늘날 우리는 땀 흘려가리 중인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알게된다

2009년 세월은 많이 흘렀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믿지
않은 인간이 너무나도 많다

이 사람들을 주님앞에 끌어내기 위한 사업은 멀기드라고 험난하여 볼
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오늘 할수있다 / 라는 느낌을 받았다 -

세계 각처에서 모인 이 많은 나라의 엘리트들이 장차 그나라마다의
훌륭한 지도역할을 하면서 또한 비록 작은 거자씨 같은 존재라
해도 땅이 떨어지면 크게되듯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룰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다른신들의 땅을 짓고 세력을
키워나가려하는것들이 많이있으나 결국남의집에 들어와사는

이 불법신들은 주인에게 쫓겨날것이며 하나님의 권리는 영원할것이다
작은 한권의 말씀책이 일곱일 책도 땅이 떨어지리 않는다는데

손손대대토 이 책을 도대토 성공할것이다

NBF의 강한 지도력이 있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눈앞에 펼쳐
지고있다

기뻐하며 춤추며 양손을 흔들며 찬양하는 모든의 모습 (특히 2세대들)
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레이스와 준이가 무대에 선것이 신기하고 놀랍고 예뻐다

J. 15

「 어머니 앞에 걸어가든 청바지입은 사람이 영국에서 유명한
변호사야요 보통변호사가 아니야요」

식당에서 밥먹고 돌아오는길 여느리의말에 귀가 번쩍들어 바라보았
보통키에 알맞은 몸매의 남자가 두칭구와 3인이 걸어가고 있는것 이었
워낙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모인이라 이 작의마한 시골이 갑작히 큰
도시가되어 여러각종의 사람들이 많다

조금가다가 중년신사 같은 풍채좋은 사람과 여느리가 방잡게 인사
한다

「 저사람은 성훈관대 교수인데 과거에 우리집에 있었어요 부인은
한 의사고요」 한다

모든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도 초지의 신앙심
을 버리리않고 충성을 다 하는것을보고 느끼는점이 많았다

본에서온 목사화 마리아 신앙의 간증등 참 좋았다 -

하나같이 공동된점이 예수믿기전에는 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왜 사는
지도 모르고 무엇을해도 잘되지않아 신앙을 많이하고 방황했다는
것이다 준성이나 민정이드 이런 모임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 -

회고 핀원피스를 입고 10명정도의 여자들이 춤추는 28면이 스크린에
나온 예수십자가 아 분취기가 났아서 슬피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내가 이글을 쓰면서 마르세상적인 행사바사를 바라보는것같으나
그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모든것이 필수다

높고 병들고 배운것없고 가난하여 헌벗은 사람이 "예수믿으세요,,
하면 누가 따르겠냐 권도하는데도 도움이 안된다

그레이스가 행사 진행의 사회자 역할을 하고있는것이 무척
아름다웠다

수양 회에서

에스겔서 11-1-24
두 독수리의 비유
요절 11-24

8.17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다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2009년 유럽 국제 수양회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또 준비된대로 최선을 다해 수양회를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님의 소망이 러의 심령에 구체적인 방향을 갖도
록 저를 계속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양식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각각 바벨론과 애굽
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시드기아왕을 세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아는 완전 독립을 구하며 애굽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징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행동이었습
니다

시드기아는 독립을 구하거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시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같고 종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심든지 그곳에서 조용히 땅에 뿌리를 박고 그
지반이 재공하는 물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 날아
다니는 독수리에게 물을 더 달리고 가지를 뺏는 것은 잘못된 사고
방법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아왕이 비록 바벨의 동치하에 있더라도
충분히 물을 포함한 땅에 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겨지는 종자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조용히 그 심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어떤 통치
하에든 두어 ~~가~~ 변하고 자손심을 삼하는 일이 있어도 그에 담긴 하나님
의 뜻을 겸손히 찾아 자신의 갈뚝을 희게하는 생활을 해야 합
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갈뚝된 생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 배려하고 시드기아왕을 세워주어도 결국은
마르고 뿌리가 뽑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번의 바벨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자치권도 없이 망하게 되었
습니다

22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홀으셨지만 백향목 꼭
대기 가지를 취하여 이스라엘 산에 다시 심을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십
니다

하나님은 홀어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선교를
이루십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들의 낮은 나무를 높이고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우리가 남의 통치에 겸손히 못함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면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많은 은혜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 중풍병과 레위같은 죄인을 부르시며
마른 뼈를 살려 주의 군사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1 성경공부와 선교 명령의 순종을 통해 세계선교를
이루고 또 말씀으로 이시대의 잘못된 세상에 도전하도록 전
요한복사님을 통해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생각해볼 때 켈론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잘 알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그 땅이 주는 물을 잘 받고
겸손히 성장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도와 그의 징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낫은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 마음의 교만과 불평을 버리고 겸손히 그리고 복지런히 살때 하나님은 낫은자를 높이시고 다른나무를 무성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뿌리가 뽑힌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의 포로가되어 이방 땅에 심겨질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뿌리가 뽑힌 나무가 재대로 열매를 맺을수 있는가 걱정으로 비유의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겸손히 자신의 최선을 다할때 하나님은 다른나무를 무성케 하십니다

헨나디 - 다른나무를 무성케 하실수 있으신 하나님.

요하네스

하나님은 각자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신다

저는 오늘 독일어 성경을 보면서 한국어로 일용할 양식을 씁니다
 본문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반복인지 혹은 각소절마다 조금씩 다른뜻이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1절에서 9절을봅니다
 바벨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쓰는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빨이 상했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것은 포로가 된 그들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 그들이 포로신세가 되었다는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말을 더이상 쓰리말라고 금하십니다
 우리도 과거에 남이 혹은 조상이 무엇을 잘못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오랜동안 하며 운명적으로 산수있음을 깨닫게됩니다
 이 구절에서는 왜 그들이 더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방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줍니다
 아비와 아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자가 죽을것입니다 - 아비때문에 아들이 죽지않고 아들때문에 아버지가 죽지않습니다 우리한사람 한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것을 가르쳐줍니다
 사실 한사람의 불의가 일을 잘못되게하고 악영향과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상했다고 한탄하며 산수있습니다 이런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점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는 남을 헤리리 않겠다는 정돈가 아니라 참 인생의 복력이

하나님 영원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의 아내를 탐내거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날을 억압하거나 경제적으로 약한자를 두자비하게 착취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를 배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와 셋째를 합치면 정욕과 탐욕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의 포로가 되게 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속국이 된것은 그들의 불의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살게할것입니다
 아버가 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상했다는 말에는 이제는 다시
 어쩔수없다는 전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의롭게살면 다시 생명을받고 축복을
 받을수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묻습니다 아들이 위에말한것의 짐반대로 산다고
 가정할때 그아들이 축복받고 있지않으냐고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또하나의 좋은 면에서의 경우를 예로 드십니다
 아버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구나하고
 옳게 행하여 의를행한다면 아버의 잘못때문에 아들이 죽을수
 없지않은가고 방문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8절까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고 불의를 행
 하며 무상송배른 사나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아들이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제는
 어쩔수없다는 속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된다는것을

이 소절에서 배울수있습니다
 그반대로 하나님은 바벨의 포로가된 이스라엘의 라손들이 오히려
 징계하신 하나님속에서 바르게 사는법을 배우기를 기대하고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짐을 라손이 지는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생각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속명적인 생각을하며 죄선교생활이 더 잘될수있었는데 다른사람
 의 잘못을 내가진다고 생각할때가 많았습니다
 이런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짓는자가 그죄값을 갚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만 그의가 보상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행해야 합니다 — 제라음에 살인 원망과 속명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충성되어 신앙생활을 할수있기 기도합니다

21-26절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에 사함을 받은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죽는것을 좋아하고 박수치는분이
 아니십니다

24-26절 의인이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지으면 그동안에 의를
 많이 행했어도 벌을 받습니다 — 그런데 의인이었다가 죄를지어서 벌을
 받는사람의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벌만받는다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아니 저죄인은 음방다시 축복을 받는데 나는왜 일이 안되는가 생각할것
 입니다 — 하나님이 묻습니다 정말하나님이 불의할수있느냐고
 너희가 불의하지 않느냐고 — 이처럼 의인이었던 사람은 자기불의를
 잘깨닫지 못할수 있는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런생각을 빨리버려야
 합니다

27, 29절. 불의를 행하던자가 깨닫고 의를 행하면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왜 과거에 악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내리느냐고 항의합니다

30-32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각사람을 그의 길대로 보듬하십니다

바른길을 가는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명론자처럼 꾸리얏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잘못 생각하고있는 바벨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려라 왜 너희는 죽으려고만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는것이 아니라 라는것입니다

제 마음에 살아인 원망과 속명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충성되어
신앙생활을 할수있기 기도합니다

한마디 - 새마음과 새 영을 가려라

온화네스

나는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깜짝 놀랬다
믿노라면서 충성치 못했던것과 내 죄때문에 내 라식들이 그동안
고생했다는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있던 젊은 시절에는
남편의 인이 하는것마다 실패했고 고민과 고통속에 살았으며
그후에 깨닫고 신앙생활에 들어갔지만 죄에대한 회개는 없었다
따라서 아이들어 많이 고생했고 특히 ~~내~~는 말할수없는 마음의 고생
이 심했었으며 지금까지 소경이 온경이든 마음고생이 많다
모든것이 내 죄때문이다

자기의 죄를 회개 하지않고 산다는것은 축복받을수 없는 신앙생활
이며 아귀 첫발도 내디디지 못하는것과 같다
김서방 생각이난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원하는 수준이
되어주지 않는것이 많이 마음아파 하고있을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죄때문이다 - 만일 김서방이 열심히 또 2간
하나님을 믿지않은것을 회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서약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자기의 라식들이 축복받을것이다

분광교회의 서편사 생각이난다. - 2사람은 어릴때부터 고심이
엄청센 사람이여서 남의의견은 들은적이 없고 자기의견대로만 범사를
진행 했다고 했다. 둘째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가자 해도 듣지않았는데
2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남편은 부인의 성격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말으론 죽었다 - 두남자를 보낸후 깨닫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

어제 UBF 선교사님 이야기도. 그러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리 권해도 듣지않았는데 아내가 애기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서 죽었다 - 아귀 신혼인 이부부의 불행은
한생명은 갓지만 남편은 열심히 섬기는 사남이 되었다
준성이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도 믿어야 된다. - 자기가 다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사랑하는 자가 다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

에스겔 20장 1-49절

요절 20장 44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징책하며 그들의 비애를 메어
한리 수년이 리냈습니다 — 그의 이름이 알려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나셔서 그들이 묻는 것 조차 허용하지 않겠다 하시
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들었는가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듯의 요절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절서 9절. 애굽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같이
우상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눈앞에서 구별하여
이끌어 내셨습니다

불신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곧 하나님은 유일한 신
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그가 참신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0절-26 하나님을 믿게 된 이스라엘은 하늘 나라 혹은 겉과 같이
흐르는 새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고라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받고 바른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축복은 원했지만 계명과 말씀은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고
산양리만 세삼사십들이 예수님 밑다가 땅한다고 말하는 것이
삼에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까지 인도하였습니다
22절 —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들 금하고 달리 행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27-32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앞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방인처럼 돌과 나무를 섬기면 잘 되리라 생각했습
니다 — 그런데 그들은 산과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렸습니다 —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33-39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듯이 심판하시
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려면 섬기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0-44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서 다시 모으고
출어린자들을 다시 인도하여 거룩한 산에 오게 한 뒤에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찾아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입니다 이 말씀은 신령하고 비전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바벨의 포로가 되어 장래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신령한 말씀입니다

4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행한 대로 막하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선을 행한 뒤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복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곧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
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배울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부모이기 위하여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찌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

사람이 식물에 거름을 주고 인내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선은 거름과 같습니다 — 하나님은 끝없는 선과 인내로 백성을
인도하여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45-49절 이스라엘 백성이 레사를 리버던 푸른산짐과 나무들은
여호와의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술아 혈기가 있는 사람은 다 —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알것이
지만 사람들은 예스겔이 비유를 말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하고
믿지 않을 것이라 고 예스겔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산

김대중도 가고 공산주의도 가고 은행도 하루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속에서만 참 생의 의미와 하나님이 두신
같은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고 온 거름 하나님을 길들버리고 여러가지 자기
소원대로 살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려는 것이
희망이 됩니다

42-44절에서 바벨의 포로된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열조의 땅 곧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
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잠언 4-1-29 요절 23절.

무릇 리킬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리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독일어 본
너의 마음을 열심을 다하여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삶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예배를 축복하시고 제가 일용할 양식과
세금정산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젓인가 주고 싶는데 사실은 별다른 줄것이 없을때
가 있습니다 — 돈을 주면 오히려 망칠까봐 주지 못합니다
결국 아버가 하는말은 잘해라 주의책이 에그치고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자라나는 아들은 유약하고 아직 자기인생을 개척하지 못했
기때문에 유약합니다 — 그러나 리켜라 명철을 위하여 여기면
그들이 유약한자를 보호해줍니다
지혜와 명철은 보호라요 성공의 안내자입니다
러도 모든일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사업에, 양리는일에, 동역에, 그리고 자녀양육에, — 그러나 너는
유약하고 자신이 없을때가 많습니다
너는 지혜와 명철을 위하여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왜냐 — 악인의 길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 이 유혹이 눈에보이지 유혹하고 주의할때 보이면
좋지만 이 유혹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탄같이 주의한경과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마음에 목적을 불어리키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알단 이런 세사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속에 자리잡으면 넘어려도
왜 넘어진줄조차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소감을 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들어온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와 명철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즉 늘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인생의 성공과 광명의 길을 원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유혹과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수 있다면 우리는 리킬만한 모든것보다 마음을 리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후 그의마음을 리키고자 싸우시면서 사신것이 아닐까요?

마음을 리키면 그마음가림과 생각에서 생명 혹은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저의 다양한 과제는 쉼론에서 동역 재가양성 사업성공 또 그레이스라 조미의 영적 성장과 결혼 그리고 건강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수 있습니까?

저는 나태해진 마음을 고쳐서 부리런 마음을가리고 마음을 리켜야 합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열심을 다해 마음을 리키라 라고되어있어서 열심이 라는말이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을 얻고자 사는것이 보통사람의 인생이라면 열심히 마음을 리킨다는 것은 무엇인리요?

그러나 마음을 리킬때 생명이 그마음에서 나오자는것은 남들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른마음을 가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바른 그마음이 설새 없이 공략 당하는것이 일상 생활이기 때문에 성과같이 요새와 같이 마음을 리켜야 되는것입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 세상으로 부터 나의목숨과 전망으로 부터 공략 당하고 그래서 가끔은 힘이없고 확신이 없는것이 깨달아 리기 시작합니다 리킬것이 많지만 마음을 리켜야 합니다

한마디 - 무릇 리킬만한것 보다 더욱 마음을 리켜라
요하네스

오늘 2009년 8월 23일 새벽 3시반

김부인이 돌아가셨다 (취락암) - 아프신리 얼마 안되어 갑작이 돌아가셨으니 본인의 병고는 수년동안 병상에 리내야 하는 분들에게 비해 적다고 할수있지만 갑작히 가시게되어 주위사람을 몹시 섭섭하게한다

특히 김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아플까?
헌신적인 가정의 어머니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조용히 언제나 남편과 아이들을 뒤에서 이렇게 잘 섬기는분도 드물리않을까?

김선생이야 애국지사 이리만 그을어해하고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가 얼마나 중요했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혼밖에서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어야 했던 것처럼 김선생님은 알아주는 사람없이 이방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 하고 또 한국민의 영생을 위해 기도했다

기독교 제등에도 사상이있어 리극한 애국인들이 많으나 나는 그들을 잘 이해 리키 못한다

조국한국에 들어가는 자유권까지 없다하니 김선생님을 위해 안타까울 뿐이다

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가 걸려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헌신이 사실이였듯이 그가죽은 아름답고 헌신적인 반려자요 그들의 어머니였던 김부인을 위해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그들의 공론가 아니라 보비리않는 하나님의 리극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남녀를 만들고 사랑이라는 개념뿐 아니라 실재를 함조한 분이시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랑과 헌신이 그러면 어디서 오겠는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격령 그바람

이제는 김부인은 돌아가셨다

내가 기여하기로는 (이문라씨라) 감원도 출신이셨던가 -
면 이국에서 자식들을 걱정하시면서 이제는 가셨다

과연 누가 있어 이토록 이가정을 염려하고 섬길까?

하나님께 기도가 걸린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가호와 축복을 내리소서

김부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기도를 아시옵니 범사가 평통해 지도록
기력을 베풀어 주소서

돌아가신다는 말은 병고아의 싸움과 염려와 절망을 이기는
평안이 표현되어있다

오셨기때문에 가시는것이다 보이기않는 세계를 하나님 품으로

나의 아기를 감사기념때가 생각된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곳일것이고 그의사명을 다 하였음을 알리는 천사가 되었을까?

사람들이 내가 이글을 쓰고있는 교회앞 벤치앞으로 왔다 갔다한다

할일이 있기 때문이다 - 푸른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조금있고

프라타나 소나무는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고있다

일제시대 율동주 시인처럼 조국이 비록밀레의 압박에 있었어도
죽어가는 모든것을 사랑해야리하랴 노래했던것이 몹시 감격
스러웠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땅에

와서 돌아갈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쓰고 생각하는것이 교인의 명복을 빈다고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교인의 명복을 빌고있다고 할수있다

2009년 8.23. 한빛교회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처음에는 주일마다 내가다니는 교회에 나를 데리러 왔다
(저는 회관에서 예배보고)

9月1日이 조이 졸업식인데 8.31日 런던에 가도되지만 조이가
31日 런던 VBF에서 예배를 보고싶다고 해서 주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약 2시간을 달려서 비행장에 도착했다

프랑크푸르트 비행장보다 더 먼거리인것 같았다

6시부 출발하는 비행기가 약 한시간후에 영국에 도착했다

독일과 런던의 거리가 가까운데 새삼스러웠다

그곳에서 빌려주는 차는 운전석이 우편에있어서 좌석이 앞으론의
일정에 이 어색한 후를 과연 잘 운전할수있을까? 몹시 불안했다

호텔로 향하는데 런던 시내로 향하는 길이 참 멀었다

무사히 도착한후 정해진 방에 짐을 정돈하고 12시쯤 호텔에서
주는 식사를 마치고 VBF를 향하여 달려서 오후 2시예배에 참석
할수있었다

VBF 식구는 100명도 안되게 각은식구지만 외국인부 한국인부 정도로
보였다 - 전에 조이가 이곳에서 공부할때는 주일마다 키라반쿠
를 했었다고 했다

남의나라에서 고독하게 살때 이런 신앙의모임이 얼마나 위트가
되고 ~~남의나라에서 고독하게 살때~~ 힘이되었겠는가

영국에서 유명하다는 변호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피곤함으로 설교도중 거실에나타 의자에누워 수고있었
다

예배후 호텔에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저녁식사를 하기위해식당가
를 누비다가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다

나는 호텔이라 하기에 몹시근사한곳인줄 알았더니 화장실다니기
도 불편하고 계단도 얼마나 좁고 경사가 심한리 딸이러 다칠까
걱정이 될정도였다

월요일이다 호텔에서 주는 식사 후 관광으로 나섰다
런던 시가 중심지를 벗어난 주변은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볼만했다
세계 2차 대전 때 공습으로 독일은 깨끗이 망가져 새롭고 건물이
이기 때문에 현대식이라고 한다면 런던은 아주 예술적이고 귀족적이고
신앙적인 건물이 많았다

여왕이 산다는 버킹궁은 조금 실망스러웠다
건물도 아무 특징 없이 평범했고 석상도 새로 칠해야 할 정도로
벗겨져 있었다

그러나 궁앞에 광장에는 사자상이나 무사조각이 있고 그 밑 물속에
는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어 이태리 어느 분수에서 본 모습과 흡사
했다

다이애나와 찰스가 결혼식 때 걸었다는 길도 보았으나 별로 색다른 것은
없고 평범한 길이었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톰 리키는 군인이 두 군데 있는데 리허하는 사람도
호령 하는 사람도 있는데 탁탁걸으며 평제하고 보충 서고 있는 것이
였다

법원, 국방부, 대사관 등의 건물들을 이쪽 크롬어에서 볼 수 있었다
크롬은 깨끗하리 만큼이나 불타 깊은 배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어느 나라든지 크롬이 있어야 또 크롬끼고 큰 도시가 설 수 있다는 말이
생각 나서 우리 서울도 크롬 때문에 발전하는 것 같다고 이상하게
고맙게 느껴졌다

비행기 값 한 사람당 5유리의 산값으로 많은 구경을 한 셈이다

오늘은 조이 졸업식 — 아침을 얻어먹고 바른 식량으로 양했
다 — 많은 사람들이 응성거리 사이로 조이가 사각모라라
보라색 깃털을 두른 까운을 입고 나타났다 —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보모들은 고생했는가 하는 생각에 옆에
서 있는 며느리를 보니 무척 행복해 하는 표정이었다
왜 흥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동양인보다 많은 것 같았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고 (오전 10시반) 학장의 연설 속에 학교 자랑
도 있었다고 한다 나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지만 설명으로는
이 대학은 유럽에서 삼등만 만들고 세계적으로는 1등만 만드는
대학이란다

조이가 1년은 기숙사에 있었고 또 1년은 이것 선교사 집에 있었다는
데 그 선교사님 내외도 참석해 주어서 좋았다

자기 라식들이 아직 5, 6세인데 조이같이 공부할 했으면 하여 각
부러 걱정된다고 나에게 말한 다

그후 학교에서 주는 간단한 다과회를 마치고 학교 안을 구경했다
UBF 여선교사 (영국사람)가 이 학교의 직원이어서 잘 설명 해주
고 자세리 볼 수 있었다 — 복도의 깨끗함도 말할 수 있다

마담 잔디에 돌 비석이 일본 명지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가 세운
것이라며 「시」가 적혀있다고 하여 가까이 가보니 「시」는 아니고

일본 발전에 기초가 되여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내가 태여 나기 전부터 일본사람들은 이 학교에서 공부
를 했으니 얼마나 세계를 배우고 고국을 발전 시켰겠는가 감탄했다

인도의 간디도 이 학교 졸업생이란다

내일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된다 충분한 휴식을 하라
그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

9.4 금요일

온유한 라는 복이 있나니

요절 5.5. 온유한 라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차지 할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 늦었습니다 - 어제 김부인 소천사 준비를 하느라 늦게까지 프로그램 팬프러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시간 주제를 나오니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모인무리들의 상처받고 눌린마음을 잘 알고있었으며 세상에서 살아남기위한 투쟁으로 날카로워진 심령을 보고계셨다 그래서 그가 축복되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난하고 애절한 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귀절인데 온유한 라가 땅을 차지할것이요 의에 주린 라가 포만함을 얻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세상에서 온유해서는 이롭이나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못하는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이, 온유한 라들이 땅을 차지한다는것은 잘못된것 처럼 보입니다 - 약척 같이 얻기위해 싸워도 제꼴을 차지하기 어려운데 온유, 타니 - 중동지방에는 물이귀해서 강한라가 약한라의 우물을 무력으로 빼앗았고 이삭은 우물을 네번이나 다시 파야 했습니다

온유한 라는 땅을 차지하는것이 아니라 땅은 다- 빼앗기고 천국이나 차지하는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때 정말 온유할수 있었다고 하면 빼앗기는 아픔을 당할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온유했다면 그는 사람과 하나님앞에 전혀 다른 영광력을 주고 상대방 내지 하나님도 온유한 라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타리라는 것은 추측이 됩니다 빼앗기는 순간은 아프지만 결국은 온유한 라가 나중에는 마음은

얻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얻어 땅을 차지하게 되는것이 아닐까요 -? 약척스럽고 빼앗고 지리않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실물어지는 경험을 해 보지는 않는지요

야곱은 비교적 약척스럽고 재산을 늘리려고 축복을 랭취하려고 사람과 또 하나님과 늘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친수도 앓았지만 그의 약척스러움을 살리고자 열부러 져 주시면서 그를 이긴다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타반과 같은사람과 늘 씨름해야하는 끈고한 삶이었습니다

이런점에서 하나님은 어떤사람이든지 품으며 이해 해주며 사랑 하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세상 만물을 리으시고 모든것이 당신것이신 하나님이 멸씀하십니다 - 온유한 라가 땅을 차지 할것이라고 -

이처럼 온유한 라가 땅을 차지할것이라는 하나님말씀을 믿으려면 믿음이 있어야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그가 사실은 모든것을 차지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것을 주어야 했으나 자신을 부요한 라라고 고린도 후서 6장/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10- 무명현라 같으나 유명한 라요 (명예욕심을 버리게 해준다)

근심하는 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난한 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라 같으나 모든것을 가진 자 례다

진정 온유한 라는 그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인하여 부요한 라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라가 땅을 차지할것이요 라는 말씀을 믿는 순간 그는 천국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것을 얻게되는 부요한 라가 됩니다 -

내가 모든 재산이 있어 ~~부~~주고싶다면 누구에게 줄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미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먹고 살수 있는 복과 건강과 재주와 모든것을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합니다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합니다

제가 자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을학기 / 대 / 성경공부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 같으나 그 마음이 부요했던 김부인 2가령을 지키고
채워 주시며 무엇보다 귀하게 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 月 6 日 .

초대 받은 집. 패터 리 한나 리 (부부선교사)

① 옛적 2002년도 에 한번 초대받은적이 있는 가정이다
변함 없고 늘기많은 두분은 여전히 슈퍼 앞집에 살고있었다
내집도 안인내에 그림에 오래도 살고있다 싶어 놀랐다
변한것은 사과같이 크고 무섭게 생긴 개를 키우고있었는것였다

② 셀림 (아들이름)
전망이 좋은 집이었다 - 독일 선교사와 결혼한 이 여선교사는
육개장 끓이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 그레이스가 맛있게 두그릇을
먹는다. 나도 맛이 있었다

③ 페트라 - (마리아의시대)
이집트 여자는 대우사람 뱀라는 독일사람이다 선물로 김과
메론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차안에두고 잊고 버렸다
자기는 김치를 못 달아서 김치가 없으나 -

④

2008년도에 써놓은 쪽지가 오늘가방에서 발견되어
버리기 전에 노트에 옮겨놓으려한다

10月 ? .

주가가 연일 폭락한다 - 남자는 가정에서 주가가 내리면
아내에게 반가리를 신경질 나는 표정으로 대하고 주가가 오르면
항상 명랑하게 대한다
아내는 죄 없이 당하는데 요즘 이런가정이 많다고 한다

11. 5

어제 새벽꿈에 바나나를 보았다 - 커다란 바나나 송이를
길다란 각대기에 걸쳐서 높은 ~~숲~~ 속에서 냇가에 있는 나에게
내려주는 꿈이었다 - 누가 주는지는 모르고 남라인것만 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 그러나 나의 새벽꿈은 100% 맞는것이
기때문에 무슨일이 있을지 신경이 쓰인다

11. 15

어제꿈에 내가 다니는 산앞길에 수렁같이 많은물이 길 밖으로
넘치도록 많이 흘러내려 오는것을 보았다 - 어찌나 물이깨끗
한지 모래알 까지 볼수있었다

저녁식사때 이서방이 무슨 시험인지 보았는데 수석 합격했다고
한다 - (간단한 시험이지만)

내가 꾸는 새벽꿈은 이렇게 잘맞추기 때문에 나는 내 새벽꿈
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한다 - 항상 꿈을 달라고
기도하니 -

얼마전도 ~~한~~이와 같이 한강보다 더큰 강을 건너는 꿈을 꾸
었다 - 물이 흠뻑물이고 엄청 많이 넘쳐서 건너는 다리위
까지 넘실거렸다.

내가 앞강서고 櫃이가 뒤따라오고 하며 그강다리위를 건너서
건너편에 닿으니 아주 흥롭하고 좋은 한옥집이 한채있고 그안에
들어가 한바퀴를 돌고 나왔다
무슨꿈인지 해석을 못해서 독일에 무슨 일이있나? 궁금하여
전화를 해보았다 — 언제나 한국시간 오후 3시 반이라야
통화하기 좋는데 해석계를 잘못보고 2시 반에 했다
그레이스가 받았는데 자다가 일어난듯하였다 — 마안했다
저에게는 할 말도 없었다
櫃이를 찾으니 새벽기도 가고 없었다

2009년

5. 10.

한승부 원사는 부라다 — 우리앞동 아파트 35평에 살면서
방 둘을 세 놓고 두아들이 생활비 보태주고 풍족하게 살고 있
었는데 몇일전 아들집에 들어간다고 이별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아니 혼라살면 편하다고 하더니 왜 라식한테
가느냐?」 고 물었더니 밥해먹기 싫어서 못살겠다나 —
얼마나 부역에 들어가서 싫으면 아들집으로 들어가나? 라고
의아해 했더니 내가 그렇게 되었다
이제 해주는 밥 먹고싶다
1개월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어찌나 아픈지 걸을수가 없다
화강실도 겨우간다 — 약약 소리가 저절로 날정도로 아프다
열드나고 슈퍼 드물론 못간다
어제는 한의원에가서 침 맞고 쑥뜸을 했더니 더 아파서
못 견디겠다
오늘 일어나라 마라 정형외과에가서 X레이를 찍었다
의사는 아무아삼이 없다고 주사맞고 5일분 약을 주테니 먹어

보란다 — 아무랄이 없다니 밤가우나 그러면 왜 이렇게
열이나고 아파서 못 견뎌는가?
생각하니 나는 모두 의사가 못 고치는 병만 가지고있다
귀에서 웅웅 소리나고 목이 아파 람트개는것도 과일 먹으면 설사
하는것도 손등의 일테리트 이파의 피부병도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도 —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다
인생은 이렇게 해석 끝나는가 —
오늘 뉴-스에 노인들 뇌출혈로 쓰러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지
늦으면 병신이 된단다 —
그러나 나같은 사람 하루종일 아무도 없는데 (나는이렇게 혼라 있
는것을 좋아 하리라) 쓰러지면 병신되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남게 기도하아라

짜르릉 전화소리 구역질이 자기집 이사했다고 예비보러 오란다
복사님도 오시고 원사님들 모두 오신다고 한다
나는 못 간다고 했다 두어달전부터 목이 아파 귀로운데 이비인후과
의사는 이것을 못 고쳐준다 후두암인가 싶어 재생병원까지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 암은 아니고 나이 많아 침이 마르면 갈림어
가지않아서 목에 붙어서 말라 있는것이리라나 물을 자주 마시는것이 좋다
는 말만 한다.
내가 당포가 없으며 얼마든지 물마시겠다 소변을 자주보면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못 마신다
당이 빠지면 어리럽고 당백질이 빠져나가니 합병증이 금방 올것
이다 — ~~물~~ 오늘은 더구나 춥고 바람이 심하여 나가지 못
하겠다 — 그래서 거절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일거리가 많다
세탁기를 돌리고 그빨래를 널고 와이셔츠가 5장이나
밀렸으니 세탁소에 가고 찬바람 쏘이며 신호등 앞에서 생각
했다 — 나가지 말라는 의사말도 안듣고 돌아다니면서

구역예배는 참석치 않는 내가 과연 신라인가? 하고
돌아와 다사준비 하느라 시금치 무치고 생선조림하고 12시까지
서있었으나 11시에(오전) 일어난 유래는 반찬은 쳐다보지도 않고
과일만 먹는다
나는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가한 반찬을 맛있게 먹어주면
피곤가 확 풀린다 — 아침부터 이서방은 꼼짝도 않고 TV
만 보고있다
소름이가 오늘은 토요일이라 / 시금치 퇴근하게되니 점심은 그때
먹어야지 —

3. 27.

찬송 78랑 참 아름다워라
오늘아침 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보고 이찬송이 부르고
싶었다 — 아직 산은 추운데 나무 가지들에 파란 새색이
울튼것을 보고 이런 광경을 보리못하고 보고싶지도 않은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새삼 하나님과 송씨에 놀라면서 이곳에 올수있는 힘 주신 하나님
께 감사했다 — 요즘은 못 오는날이 많다
나는 언제까지 이산에 올수있을까? 궁금하다
산에서

홍자 살고싶다
소름이도 내 입장이 되면 신업라 사위와 함께 살라면 싫을
것이다 — 부자 딸하고도 살기 힘들는데 —
이 서방 어머니도 큰 사위가 평생 놀고먹는다고 걱정했다는
데 더구나 한집에 살으라면 어떻게든가 —

준성이는 한국에 살리말아야 될것같다
성적좋은 사람만 대우받는 이런 세상은 리욕이다 —
빨리 벗어나야된다 — 왜 멀쩡한 아이에게 이런 큰 좌절
감을 주는가 —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주가
있는것인데 —
나는 준성의의 강해를 위하여 어떤 도움을 줄까만 명구 하기로
했다 — 그 목적을 위하여 전강해야지 — 기도해야지 —
10시반 - 하늘에는 하얀비행기가 어김없이 지나간다
저것을 타고 이런 고민없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 준성아 —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야지 공부만
다 — 나
산에서

바짝 마른 나무잎 하나가 홀로 외로히 나무에 붙었는데 약간의
미풍에도 풍차처럼 정인없이 뱅뱅돌고있다
무순힘으로 저리도 말라빠진 갈색나무잎이 모두 떠나버린 나무가지에
혼자남아 떨어지리 않으려고 저리도 버티고 있잖아 — 나는 그림이
놀랐다 — 약간의 바람에도 정인없이 빙빙 돌면서 —
꼭 나 같은것 같아서 한참을 쳐다보며 살아온 인생을 생각한다
산에서

기도 하면서 온갖 잡념이 들어온다
나는 이렇게 잡념 때문에 기도에 기도에 리량이 있으면서 무엇하러
산에 오느냐 오리말라 / 여자책한다
독일에 소포보내달라는 소름이 부탁 이서방 런닝 사러가야지
나 파-마 하야지 독일 내외 허리띠 사러가야지 (사달타고 하리도
않는데 나는 이렇게 일거리를 만든다) 등등 — 또 우리가
먹을 점심 밥이 없는데 밥하야지 —

1.21.

아침에 유리가 시험치러 간다면서 기도를 부탁한다
 오대만에 산이오니 천국에 온듯 기분 좋고 하늘은 구름한 점이 파랗다
 나는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전부터 눈물만 흘린다
 어제 大田 다녀왔는데 운경이의 심경이 너무 괴로운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준성이 성령때문에 많이 슬픈모양이다
 왜 공부나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까 —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몇배나 더 많은데 그사람들은
 사람아닌가 — 인생이 망가진것인가? —
 다 — 목심때문이다 — 그러나 그목심도 사랑하기 때문이겠지 —



영들의예수



십자가



기도모습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 받는다는 복이있다

(마태복음 5-10-12)

와로인하여 핍박 받는다는 복이있나니 천국이 저희의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새구가시라 되였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열매 맺고 심기교라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 받는자가 복이있나니 천국이 저희의것임이라

핍박을 일부러 받거나 핍박 자체가 좋은것이라는것이 아니다

핍박을 필수있으면 안받는것이 좋다

그런데 어떤때는 의를 지키려면 핍박을 감수해야 할때가 있고

또 의때문에 핍박을 미리당하여 심경이 어려워때가 있다

이러 의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씀이다

누가 알아서 그마음을 위로해주며 고난을 대신해 줄수있을까 아무도

이럴때 그는 천국을 생각해야 한다

핍박을 두려워해서 의를 버렸다고하면 우선은 외적으로 편하리만

마음이 편하리 않을것이다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받을수가 없을것이다

여기서 천국은 불의트라든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과 반대되는것이다

의를위해 핍박 받는 자에게 천국을 생각하여 그마음의 비통과

~~천국을 생각하여~~ 실재의 고난을 이기라는 말이 아닐까 —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위하여 많은 고난도 받아야 한다

말했다 — 차라니 의가있었더라면 아니의를 몰랐다면

고난도 받을필요가 없었으리라

마음이 의가 있는사람이 라주하드내고 또 어떻게 하다가는 좌절 하기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기도 하는것을 목격하리는 않는가?

또 반대로 핍박이 받기 싫어서 늘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실제에서 자신들은 서서히 파괴되고 양심의 가책과 눈치
 먹눌림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는가?

핍박받는것 피할수 있으면 피하면 좋다 그러나 의를 지버
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핍박을 감수하는것이 좋다
천국의 소망이 이토서 생길수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려야 의를인해 화를내고 좌절하는 사람이
너그럽게 혹은 너그러우게 불의를 극복하는 자신감을 가질수있리
않을까 손해 고난을 보상받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은 자기로 인하여 핍박 받아도 조롱 받아도 기뻐
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불타면 예수는 그가 하는말과 그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
이 세상과 달라서 또 죄 사함속에 구원이 있다는 교리가 의로운
대중의 인기를 뜻 얻어서핍박받게 되리라는것을 미리 내다 보고
있다고 할수있다

하나님 믿는것과 예수믿는것이 어느정도 줄레가 된다
내가 내마음대로 내생각대로 살고 잘해도 못해도 내마음이기
하면서 예수믿는것을 조롱하기도 한다
결국은 사회와 환경이 주는 압박속에서 욕심과 열등감과
경쟁속에서 자존심과 열사라 비교속에서 고생하면서도 또
인생의 의미를 알리못한채 많은 일을 하고도 무의미 해 하면서
점말 나의 신앙이 부끄러운것이면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을
배척하는 배역한 세대 속에서 부끄러히 하리말고 자기의
세계와 신앙을 재검토하면서 지켜야 하리않을까
전도를 나가기 싫어하는 나는 우선 배척을 이길수있는 자기 확신
과 소망을 가려야 한다

친구처럼 늘 좋은말만 해주면 누가 싫어 하겠는가 맛있는것
사주고 칭찬 말 해주고 다 좋다고 말해주면 사람을 많이 얻을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진리를

분명히 확신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며 그들을 분명한 진리
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결과 그는 그들의 죽음이었지만 나는 고선지자 같이 필수는
그러나 확신을 갖고 의의 편에서서 그것에 따르는 고난을
즐 갖고 감당하라
예수님은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는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담하는 고난을 이기고 바르게 살면서 거꾸러리리
격려하시고 계신것이다

한마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생각하라
9. 7 日

소금과 빛
바다복음 5-13-16 2월 13-14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쓸것과 UBF 역사 책 되는것도
잡도 잘수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역사책에 마리못해 참석하고 되는 것도 다른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읍니다
왜냐하면 나만 나서는것이 싫었고 다른사람들은 너무나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최선을 다
도와주십시오 한미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짜리않으면 무엇으로 짜
려며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버려서 밟힐뿐이라
이 말씀은 신자가 세상의 소금임을 가르쳐 줄뿐 아니라 소금
을 가리리 않으면 무용지물 곧 쓸데없는 물건이되고 마는것
지켜해 준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데로 살고 믿는것을 자랑하고 살아야지
그럼지 않으면 믿는것이 아무소용이 없는것이 되고 만다는것이다
이름만 기독교인이리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나는 무엇을 믿는지 몰라 - 너는 믿어 드 되고 안 믿어 드 되 하고 말하면
나는 무엇이가 ?

그러나 예수님은 말한다 자기를 믿는다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사실은 세상이 무용지물 처럼 살고있으면서 무엇을 믿는지 왜 사는지
어떤것이 옳은지 옳은것도 틀렸고 틀린것도 맞는것 처럼 살고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분명한 기준과 진리를 가지고있어 세상에
스며들어가 맞을 내어주고 부패를 방지 해 주어야 한다고 예수님
은 말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소금같이 못해 하고
나무려려는 것보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Identity 정체감을 환기
시켜 주고라 하는것이다

내가 누굴리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지 잘 알고있을때 나는 나답게
나의 역할을 하면서 살수있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가지를 말할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세상의 소금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것도 같은 이유
에서다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켜면 높은것에 두어서 모든것을 비추려고
하지 의자 밑에 감추어 두지않는 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목
하라고 말한다

등불을 등경위에 두며 산위의 마을이 감추어질수 없듯이
우리의 행동은 비추는 빛이 되고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다고 자랑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라면 자랑이 없는
사람보다 더 주목되는것이 사실이다

명하 배우가 늘 주목되는것이 고역이 듯이 신라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것보다 등불이 타는 정체감

역할을 깨닫고 보면 우리의 한가리 한가리 행동이 헛된것이
아니고 비취 진다는 곧 사용 된다는 점에서 효과있는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온 소금임을 알라 9.8.

맹세 하지말라

와태 5-33-37 토요일 2009-9-12.
오전 37전 오직 너희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것은 막으로 돌아 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책자를 준비하고 너무 흥가분해서 거의
기쁨을 쉬었습니다 -

이제 새롭게 말씀공부와 제자양성 그리고 사업을 위해 령민하게
도타쿠십시온 - 그레이스라 조이가 공부할것이 밀린것 같습니다
강중화계 도타쿠십시온 - 어머니이곳에와서 알아보실 일이
없었는데 집을 알아보시는것이 남았었습니다

후자를 하면 유익이 조금있을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한국 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것이 손해만
나는건만지 혹은 다른방향을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기도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터러리) 시가이있는 아파트는 리움 현재 광합은것 같습니다
이제 주께서 오늘 말씀주시고 오늘 제가 베드로 선교사와 선교사
모임에서 제2강을 잘 공부하게 도타쿠십시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5광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리자를 패하러 온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 하셨다
그리고나서 율법은 다 - 리켜야 한다고 말했고 살민하리 말라

개신에 형제에 노하리말라 라는 제명 간음하리 말라는 제명대신 음욕을 품지 말라는 제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제명을 지키면 옛 제명은 저절로 지켜리니 예수님의 제명은 시작부터 맺어서 제명을 지키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헛 맹세를 하지말라는 제명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하면 이 제명을 지킬수 있을까?

헛 맹세를 하지말고 맹세할것을 지키라는 말은 사람이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아 그마음에 남아있는 부담 곧 빛이 생기기 않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수있다

또 맹세를 하고도 조그만 어려움에 맹세를 지키지 않는 안이함을 극복하고 좋은 결단을 지키려고 이룩려고 노력하라는 독촉 내지 격려 라고 할수있다

사람은 편함을 좋아하니

세번재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김을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할수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어기는 마음은 그것을 모르는것이다

사실 신자가 이렇게 살면 어떠한 말쟁이에 리나리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빛의 부담을 진사람과 같으며 만약 그러고도 태연하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면 이미 문둥 병자와 같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되어 외로운 그대로 앓아 다니다 그내면 현상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것이다

자- 그런데 나는 UBF이었으니 자꾸 맹세와 같은 소감을 발표하게 되는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학기에는 양을 치겠습니다 밤을 비워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등등

다- 훌륭하고 기특한 맹세이지만 지키는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구제명에는 이것을 지키도록 독려하려고 맹세한것을 지키라고 한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 본문을 볼때 다르다

첫째 맹세를 도무지 하지말라 는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말고 심지어 자기를 두고도 맹세하지말라고 한다

왜냐 - 하늘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으로 큰 도시인데 그는 자기 며리카락 하나도 취거나 점게만 들수없으니 자기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것이다 - 이렇게 맹세가 어려우면 맹세를 안하면 되지 왜 자꾸 맹세하려고 할까 - 아마도 이것은 사람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기때문일것이다

또 자기가 스스로를 독려하여 나아지고 싶은마음이 있기때문이다 곧 자신에 대한 기대 욕심이다

문제는 사람이 나아지고 싶고 잘 해라 잘 보이고 싶지만 그대로 되리없는 것이문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말라고 하는것이다

그러면 맹세를 하지말라는 예수님은 맹세의 제명을 패한것이 아닐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맹세가 없으면 안 지키것도 없으니

그러면 좋은것을 하려는 맹세에 담긴 의의는 패하여진것이 아닐까 사람이 도무지 맹세도 안하고 잘 하려고도 하지않으니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말이 아닐까?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계셨다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옳은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것을 아니라고 말할때 저절로

바른길로 살수있으리라는것이 예수님의 본 대책이 아닐까? 사실 좋은것을 옳다하고 아닌것을 아니라고 말했다 해도 꼭 옳은것을 행한것은 아니다 말하는것과 행한것은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할수있다는 말을 버릴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 하는것이되고 반면에 옳은것과 아닌것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것이 아닐까

또 옳은것 아닌것에 대한 인정이 따름에 머무는것이 아닐까

이렇게 겸손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정은 우리뿐 바른 삶의길로

차츰 인도 할수있을것이다

가끔 나라신 지나치게 성경공부만 하고 활동성과 진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기쁨을 가졌을때 하나님은 나의 생활에도 힘을 주셨다 — 내가 아기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말할수없는 보호한 상태에 있을때 ~~여기~~ ^{이제} 무엇을 확신 있게 할수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옳다 아니다 라고만 말하고 이에 더 리는것은 약에서 난것이라 말할때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서 너도 하나님같이 모든것을 할수있다고 부추기며 꼬만을 심은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 결국 맹세대신 옳다 아니다 하라 라는 예수님 교훈에는 겸손의 교훈이 담겨있고 또 권결론 이 겸손한 권리의 시인에서 권결론 이루어질 선을 바라보고 계신것이다

나도 해보고 이루어보고 싶은것이 많다

회관에서 더 빨리 더 많이 권도하고 잘 하고싶다 ~~집에서~~ ———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겸허히 영(0)에서 시작하는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겸손히 옳다 아니다 라는 판단만을 말하고자 노력해볼까
내가 할수 있다는 헛된 상상을 버리고

한마디 맹세대신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라

간음에 대한 경고

잠언 6-20-35 권.

요절 6-27

사람이 불을 품어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아비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리 말하고 잠언 기자는 경고한다 목결리 같이 이것을 걸고다니라고 한다 — 목결리는 바깥이면서 가슴을 갠식하고 옷 위에서 눈길을 끈다

이처럼 한사람이 아비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리켜살면 그 행동거리에서 흘러보지 못할 품위를 느끼게 되는것이다

명령은 등불 법은빛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고 기자는 말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걱정하는 말은 늘 지나친 조심내리 권소려
른 들리는것은 ~~나는~~ 내일을 다 잘 판만해서 할수있고 가르치고라 리
것은 벌써 다-듣고 이해 했다는 생각에서 기인할것이다

오늘 본문은 남의아내나 약한계집 곧 유혹하는 여자 ~~를~~ ^이 빠리리 말것
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여자는 그러한 방탕과 ^이 문란한 삶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리 않으면서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유혹
함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명령과 법과 훈계의 길에서 벗어나서 각유
롭게 즐기고라 하는 마음이 늘 숨어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가지 경고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꼭 안가야 할 길
을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것같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생기거나 잘못된 길을 가려는 자에게 잠언
기자는 경고한다

불을 품으면 옷이 어찌 타리않겠는가

남의 아내와 통간 하는 자는 만리기만 하여도 죄없다 ~~하리~~ ^{하리} 않으리리
는것이다 — 도적이 모르게 하지 라는 생각이 간을 크게하여 죄 갖는
것을 꺼리리 않는다 그러나 발각 될때는 기배를 감아야 한다

통간 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첫째 자기 영혼을 상한다

두려움
두려움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지 못한다
셋째 벌음보다 더큰 해를 그 남편으로 부터 받고 용서 받지 못한다
이처럼 하나님 리으신 세계는 자신의 정욕대로 자유롭게 살수있는
세계가 아님을 알수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고를 받아도 이처럼 불을 품는것이
사람의 약하고 죄악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고 속에서 더욱더
느껴야 하지 않을까 —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누어진 분복을 더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다 —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세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다 각각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분복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 세계라고 할수있다
어머님 그리고 아이들, 아내, 내 회관, 내 이웃 내 친구 등에 감사려라
헛된 불을 품으며 자유롭게 살라는 유혹은 그렇듯 하여 굴레를
벗어나게 하리만 실상은 생명을 사냥하는 말이라

한마디 불을 품지말라 반듯이 옷이 탄다

7.00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삶

8.00 라테복음 6:28A-42 2009년 9월 15일

9.00 요한 6:28-42

10.00 너희의 정진을 주의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11.00 하지 말라. 인정을 받으려면 하물에게서 너희 아버지의

12.00 자랑이 없으리라

13.00 하나님 아버지 특권이 성경을 보면서 한글말씀을

14.00 양식을 쓰는 것이 어렵지만 오늘 떠나시는 아버지

15.00 과 바리새의로 앞을 향해 양식 고리 하기 원함이라

16.00 여백에 필요한 기도를 기록하여 주시고 감사의

17.00 소망으로 당신의 여정을 신뢰 주신으로 예수님

18.00 다 이름으로 기도함이라

19.00 52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0.00 일반적이 우리를 가르쳤지만 62장에서 특히

21.00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과 기도와

22.00 금식 등에서 2명의 사람들이 갈뵈리게

23.00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서를 쓰는 것~~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의 눈
에 띠었다가 본다.

3	2008						
Woche	M	D	M	D	F	S	S
9						1	2
10	3	4	5	6	7	8	9
11	10	11	12	13	14	15	16
12	17	18	19	20	21	22	23
13	24	25	26	27	28	29	30
14		31					

7 주제를 하려면 남이 보지 않게 은밀히 하라

8 말 씀 하라. 인정을 하리 않고 다른 사람에게

9 자기 자랑을 과장하고 다니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11 부터 소망을 받기 위하여 오른손이 왼손을 인종이

12 모르게 하라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3 자는 것이 옛날에 노의 된 적이 있다. 누가 말했나.

14 선행하는 것이 양면한 것처럼 되어 슬라이 되어

Woche
13
Weißer Sonntag
Beginn der Sommerzeit
(Uhren 1 Stunde vorstellen)

März
March
Mars
Marzo
Marzo
Maart

Sonntag
Sunday
Dimanche
Domingo
Domenica
Zondag

90-276

7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8 사실 많은 사람이 선행을 그려 양면한 것처럼

9 행하고 산다. 그런데 위독 외식을 해서 사람이

10 인정을 받음으로써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닌다

11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속임하게 한다.

12 자기가 무엇 했다고 떠돌고 다니고 속은

13 내주라는 마음을 내게 받는다.

4 2008 Frömmigkeit vor dem Vater im Verborgenen
Civ. D. N. K. Mod 9 Schritte, Leiter, Andacht, Stellen.
Stück zum predigen, Einladung, Serjag,
Lektorenkonferenz, Prediger, Kalebktion, David Hong
Kiel, Hamburg, München. Facthal Study Rom.
Andreas Sond

7.00 그러나 나는 나의 인생을 전혀 이해하지
30
8.00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30
9.00 사랑이 있는 것은 같다. 그러나 엄청난 마음이
30
10.00 들을 수도 있다. 어머니의 경우 같다고 하고
30
11.00 늘 회개 생활을 우선하여 나는 나를 다른 사람
30
12.00 들이 변명하는 것보다 하나, 힘들게
30
13.00 있는 것이다. 각각에게는 내가 선을 해
30
14.00 각각은 각기를 세게 해서 바쁘다. 이웃에게
30
15.00 그만큼하면 굉장히 사랑 받을 것이다.
30
16.00 그러나 인생을 받고 안 받고를 위해서
30
17.00 불만을 보면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30
18.00 생각하게 된다.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30
19.00 보고 계시는 하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30
20.00 있다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이다.
30
21.00 편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걸로 하는 것만
30
22.00 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
30
23.00 하나님 아버지이다.

3 2008

Woche	M	D	M	D	F	S	S
9						1	2
10	3	4	5	6	7	8	9
11	10	11	12	13	14	15	16
12	17	18	19	20	21	22	23
13	24	25	26	27	28	29	30
14	31						

7.00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30
8.00 세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을 사랑하기
30
9.00 인정을 바나서 과잉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30
10.00 이러한 신앙의 세계, 아버지의 존재가
30
11.00 준비된 리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일 것이다.
30
12.00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세계
30
13.00 나의 모든 것 특히 은밀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
30
14.00 들이 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인 것이다.
30
15.00 NBH에서 영감히 성경과 기쁜 마음으로 따라
30
16.00 살 나는 이런 세계가 복음화되면 사랑과 존경에
30
17.00 대한 기대를 뛰어넘어야 하는 신앙의 세계가
30
18.00 완성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다시 사랑과
30
19.00 존경과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시 영감할 수 있다.
30
20.00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30
21.00 주리와 여행을 영원한 기쁨과 하늘의 사랑이
30
22.00 같은 약속을 있는 분이이다. 신앙의 세계는 아버지
30
23.00 은밀히 행할 수 있는 때 사랑과
가 계시어서
더 갈아 리는 것 같다

4 2008

Woche	M	D	M	D	F	S	S
14			2	3	4	5	6
15	7	8	9	10	11	12	13
16	14	15	16	17	18	19	20
17	21	22	23	24	25	26	27
18	28	29	30				

관바라.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신앙의 세계